

[기획] >> 3면  
화재 예방 교육, 실효성 높여야 할 때

[기획] >> 5면  
장애 학생의 학습 및 생활권

[사회] >> 8면  
LH 투기 의혹

[인물] >> 12면  
신건국 패션 사업가를 만나

**총학생회 제휴사업, 진정한 학생 복지 위해선**

이번 달 10일,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가 온라인 서점 '이엘리스(Ealice)'와의 제휴를 해지했다. 총학생회와 외부 업체 간 제휴사업엔 금·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총학생회 제휴사업의 계약 과정과 선정 기준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보자.

▶4면에서 계속

글 우경주 기자 02gjmoo@hufs.ac.kr

## 우리학교, HUFS 사회봉사단 모집해

이번 달 15일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회봉사센터는 이번 학기 'HUFS 사회봉사단'을 모집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한 교내외 봉사활동 기회 제공 및 학생의 사회봉사역량 강화다. 지원자는 설캠 재학생으로 한정되며 3명 또는 4명이 한 조를 이뤄야 한다. 이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봉사단을 선발한다. 교내 봉사의 주제는 설캠 내 부서와 협의의 거쳐 선정된다. 교외 봉사는 △DOVOL 자원봉사 △VMS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활동만 가능하다. 선발된 최종 봉사단은 활동 종료 후 발표보고회를 실시한다. 이후 서울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봉사단에겐 1인당 30만 원의 봉사활동 지원금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설캠 사회봉사센터는 △동대문구청과 진행하는

학습멘토링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외대사랑순찰대 △재능봉사캠프 △HUFS 글로벌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주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봉사활동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성조 설캠 사회봉사센터 담당자는 "HUFS 사회봉사단 활동 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봉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르고 사회 복지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방역수칙 범위 내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해 재학생의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은수(중국·중언문 20) 씨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HUFS 사회봉사단에 지원해보고 싶다"며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 우리학교, 세계 언어와 문화 특강 주간 운영해

이번 학기부터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은 특수외국어(이하 특수어)를 통한 '세계 언어와 문화 특강 주간'을 운영한다. 해당 특강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한양중학교(이하 한양중)에서 진행하는 특수어 특강엔 우리학교 15개 학과가 참여하며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등 11개의 언어를 소개한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특수어 특강을 통해 청소년의 세계 시민교육 역량 강화와 특수어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한다. 오종진 우리학교 특교원장(이하 오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다언어·문화를 매개로 진로 탐색 및 지속적 학습을 유도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정홍섭 한양중 교장은 "특교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한양중 학생이 여러 나라의 언어·문화 지식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교원은 학부교육 내실화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대국민 사업 총 2가지 방향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

인 세계 언어와 문화 특강 주간은 대국민 사업의 일환이다. 오 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특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지훈(동유럽·폴란드어 18) 씨는 "폴란드어 같은 특수어가 상당히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며 "특교원의 여러 사업으로 특수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오 원장은 특수어 특강 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교원은 다음 달부터 고양국제고등학교와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수어 특강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특수어 특강을 진행했던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와는 후속 사업을 계획 중이며 다음 달부터 전남대학교와 가천대학교에 특수어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 더 늦기 전에

남양주

# 글로벌캠퍼스, 취업 지원 멀티 플랫폼 공간 'HUFS JOB STUDIO' 구축해

이번 달 15일부터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진로취업센터(이하 진취센터)는 취업 지원 멀티 플랫폼 공간 'HUFS JOB STUDIO(이하 잡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잡 스튜디오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가한 비대면 채용을 대비하기 위한 공간이다. 최효성 우리학교 학생·인재개발처장(이하 최 처장)은 "수시채용 확대와 AI 면접 도입 등 채용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잡 스튜디오의 외관 (출처: 글캠 진취센터)

상 촬영 및 편집 프로그램△화상 회의 프로그램△AI 면접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도 완비한 상태다. 정종민(공과·컴전 17)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잡 스튜디오를 통해 다각화된 면접을 대비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잡 스튜디오에선 정장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



▲잡 스튜디오 내부 시설 (출처: 글캠 진취센터)

위한 정장 대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박수빈(통번역·태국어 18) 씨는 "정장 구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급히 정장이 필요한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현숙 글캠 진취센터 팀장은 "잡 스튜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안정적인 시스템과 정돈된 분위기에서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달 11일 우리학교 글캠 백년관 202호에선 잡 스튜디오의 구축 결과보고를 위한 현판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개회 및 참가 내빈 소개△잡 스튜디오 구축 결과보고△축사△잡 스튜디오 제막식 및 기념 촬영△폐회 및 잡 스튜디오 공간 확인 순으로 진행됐다. 현판식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신정환 우리학교 부총장△김용애 우리학교 교무처장△김상현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장 △최 처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서 김 총장은 "잡 스튜디오가 우리학교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달 31일 우리학교 진취센터는 AI 채용 대비법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선 AI 자소서 및 AI 면접 솔루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위수여복 대여 사업 진행해

이번 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는 새로운 디자인의 학위수여복(이하 학위복)과 학사모 대여 사업을 진행한다. 대여 대상은 △지난해 2월△8월△12월 졸업한 설캠 학부생이다.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이번 달 10일부터 설캠 총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마감 시 자동 종료된다.

위 제작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예산으로 약 300벌의 신규 학위복을 우선 제작했다. 김 회장은 "학위복 특성상 수선과 추가 제작이 비교적 자유롭다"며 "여론을 반영해 추후 우리학교 졸업생이 더욱 만족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해 처음 진행되는 우리학교 신규 학위복 대여 사업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민영(아시



▲신규 학위복의 모습 (출처: 설캠 총학 SNS)

아·인도어 17) 씨는 "다 대학과 같은 평범한 검은색 학위복이 아니라 우리학교만의 학위복이라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졸업할 때 우리학교 이름이 적힌 학위복을 입고 본관 앞에서 사진 찍고 싶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학위복 대여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8월에 학위복 대여 기간 도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설

캠 총학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를 도입하고 실내에 모이는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곧바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정부 지침에 따라 학위복 대여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이번 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지난달 28일 설캠 총학은 학위복 대여 사업을 재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설캠 총학은 기존 세 번으로 구분한 대여 및 반납 시간을 네 번으로 늘리고 사업 실무진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학위복 대여는 이번 달 19일부터 4주간 △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나눠 진행된다.

임재영 기자 02korea@hufs.ac.kr

## 직원 직무수행 관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 수여식 열려

이번 달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직무수행 능력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다. △김원범 인사혁신처 대리 △오승현 평가감사팀 대리 (이하 오 대리)△최현문 입학총괄팀 대리(이하 최 대리)가 각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정보공시 유공△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 부문에서 수상했다. 수상자 선정은 지난해 하반기 업무실적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표창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이 수여했다. 김 총장은 수상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직원 역량이 학교 발전의 기반이므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표창장 수여식의 모습 (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오 대리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모두가 힘든 일상을 지내고 있기에 수상에 대한 기쁨보단 우리학교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대리는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학생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학교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소년 진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약속했다.

임재영 기자 02korea@hufs.ac.kr

##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 개최해

이번 달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38대 동아리연합회 '동고동락'이 온라인 동아리 박람회(이하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박람회는 △동아리 홍보△신춘문예△질의응답△퀴즈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독서대△물통△필통 등 상품이 수여됐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준석(경영·경영 20) 씨는 "온라인인데도 다양한 행사가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고동락은 원활한 온라인 박람회 진행을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 △온라인 박람회 관련 공지△행사 내용△72개의 동아리 정보를 게재했다. 조혜민(아시아·마인어 18) 동고동락 회장(이하 조 회장)은 "온라인 박람회는 기존 오프라인 박람회와 다르게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 걱정했다"며 "학생의 관심을 어떻게 끌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온라인 박람회엔 4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다. 조 회장은 "회원 모집이 어려운 동아리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추후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동아리 홍보와 회원모집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학교 뮤지컬 동아리 '라운(RAON)'은 온라인 박람회에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정유빈(아시아·터키어 19) 라운 기획홍보팀장은 "라운은 오프라인 공연으로 동아리 홍보를 하는데 지난해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아쉬웠다"며 "온라인 박람회로 새내기에게 라운을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 박람회에 참여한 백지영(일본어·일본문 21) 씨는 "학교에 가지 못해 동아리에 관한 정보가 없어 걱정이었지만 온라인 박람회 덕분에 고민을 한시름 놓았다"며 "동아리 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임재영 기자 02korea@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1. 4. 5(월) ~ 4. 9(월)	5. 8(토) 10:00	5. 20(목) 14:00	5. 24(월) ~ 5. 28(금)
일반전형	2021. 5. 17(월) ~ 5.21(금)	12. 5(토) 10:00	6. 24(목) 14:00	6. 28(월) ~ 7. 2(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서울캠퍼스(자체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s](http://www.hufs.ac.kr/grs)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화재 예방 교육, 실효성 높여야 할 때

이번 달 9일 오전 3시경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 흡스동에 학생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다. 오전 1시부터 흡스동 A동 전자레인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탄 냄새가 지속됐으나 화재 신고는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접수됐다. 대학교 기숙사는 거주밀도가 높아 화재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다. △기숙사 화재 예방 교육 실태△교내 화재 예방 교육 실태△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 ◆ 기숙사 화재 예방 교육의 한계

기숙사 화재 예방 교육은 학생 참여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흡스동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전 대면 교육 때 전체 기숙사생 2,230명 중 약 330명 만이 참가했다. 흡스동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기숙사 글로벌홀(이하 글홀)에선 교육 이수자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설캠 기숙사 국제학사(이하 국학)은 교육 미이수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화재 예방 교육 참여율 상승은 미미하다. 또한 우리학교 모든 기숙사에선 화재 위험이 큰 전열 기구 반입을 금하고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흡연 시엔 즉시 퇴사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휴게실엔 전자레인지 사용 위험 물품 및 사용법 안내 지침이 존재한다. 그러나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매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재 예방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흡스동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화재 예방 교육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온라인 교육은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참여도 측면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학기 국학의 온라인 화재 예방 교육을 수강한 강민주(사회·미디어 19) 씨는 당시 교육 자료 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영상의 화질이 매우 좋지 못해 명목상 교육을 시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학이 사용하는 온라인 화재 예방 교육 영상 중 하나는 1996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에쿠노스’ 시리즈의 ‘예고 없는 화재’ 편이다. 소파에 임의로 붙인 불이 거실 전체로 확대되는 영상 속 상황 설정은 현실성이 낮아 화재 예방 교육 자료로 쓰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단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학 측은 “학생들의 반응은 이해하나 해당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한 것이다”며 자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국학 측은 “이번 해부턴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지만 대면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국학 온라인 화재 예방 교육 자료

## ◆ 미비한 전교생 대상 화재 예방 교육

우리학교는 전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이 부재하다. 글캠은 2019년 11월 이전엔 교직원 및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한 적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하지 않고 있다. 글캠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산불 위험까지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엔 흡스동 6동 근처 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글캠 시설지원팀 관계자는 “전교생 대상 화재 예방 교육 의무화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글캠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은 평소 화재 위험이 큰 실험 수업을 진행하기에 소속 학생에게 실험실 안전 교육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참여율은 약 65%에 그쳤다. 박서현(자연·생명공학 19) 씨는 실험실 안전 교육에 대해 일부 교육 내용이 실험실과 관련 없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설캠 또한 기숙사 거주 학생을 제외한 교직원 및 학생 대상 화재 예방 교육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설캠 시설지원팀 관계자는 “학교 내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으나 학생 의견

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시설지원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타 대학에선 1년에 평균 1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이와 비교하면 설캠은 2000년 이후론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설캠은 화재 위험 정도가 높은 기숙사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하고 있던 입장이다.

## ◆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완할 점

대학가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화재 예방 교육은 실효성이 없었다. 우리 학교 설캠과 마찬가지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도 전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은 진행되지 않았다. 경희대의 화재 예방 교육의 학생 참여율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희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립대의 경우 화재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은 평균 200여 명이었다.

119안전센터에 따르면 화재 예방 교육은 전교생을 교육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즉 교육에 불참하는 학생을 강제할 순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수현 용인소방서 교육담당자는 화재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화재 안전 교육을 평생 몸이 기억해야 하는 교육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 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선 정확한 화재 예방 인식과 대처가 요구된다. 학교의 실효성 있는 화재 안전 교육 진행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3(금) ~ 05.10(월)	2021.05.28(금)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4(금) 15:00	2021.07.09(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년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언론학(문화언론학)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신청서류를 www.jinhak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장학금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psp.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 총학생회 제휴사업, 진정한 학생 복지 위해선

이번 달 10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온(ON)’(이하 글캠 총학)은 온라인 서점 ‘이엘리스(Ealice)’와의 제휴를 해지했다. 배송 및 환불 관련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휴를 유지할수록 학생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총학 제휴사업(이하 제휴사업)은 우리학교 학

생만을 위한 혜택을 제공한단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휴업체의 △계약 과정△선정 기준△사례△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자.

## ◆ 제휴사업, 어떻게 운영되나

제휴사업은 학생 복지와 직결된 총학 대표 사업으로 총학과 외부 업체 간 체결된다. 제휴사업을 통해 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업체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개의 대학 총학은 여러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다. 대표적인 제휴사업 분야는 △교육△도서△생활△의료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는 △문화기획국△생활복지국△인권연대국 등 제휴사업 특성에 맞는 국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며 글캠 총학은 대외협력국에서 제휴사업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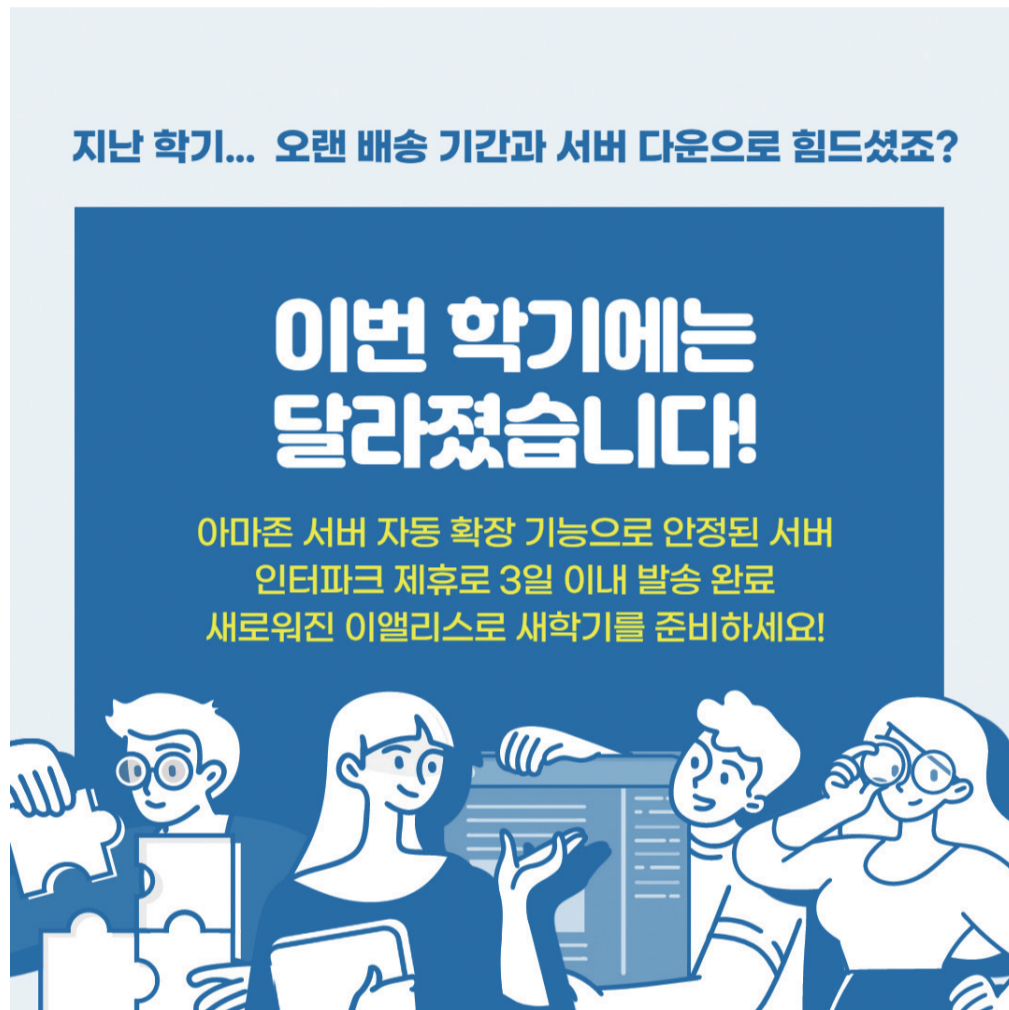
제휴사업 선정은 업체에서 총학으로 요청하거나 총학이 필요한 사업을 업체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엔 총학 내부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한다. 이후 이전 자료를 참고해서 업체 특성이나 제휴 관련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한 후 업체를 결정한다. 총학이 업체에 제휴를 요청하는 경우엔 제안서를 업체에 보내면 응답이 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달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 ‘인트로: 이공이일, 이곳이 길’에 참여한 학생에게 제공된 온라인 서점 ‘예스24’ 북클럽 60일 이용권은 설캠 총학이 먼저 업체에 제안서를 보내 체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총학은 제휴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총학 SNS 홍보△축제 시 부스 마련△포스터 게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SNS 계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제휴사업 선정은 총학 공약과 연계해 진행되기도 한다. 설캠 총학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회사 ‘집토스’와 제휴를 맺어 공약이었던 ‘자취방 가이드북’을 제작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북엔 △계약 방법△자취 추천지역△자취 체크 리스트△자취생 생활 팁이 담겨 있다. 글캠 총학은 공약으로 내건 △미용△사진△취업 분야 제휴 체결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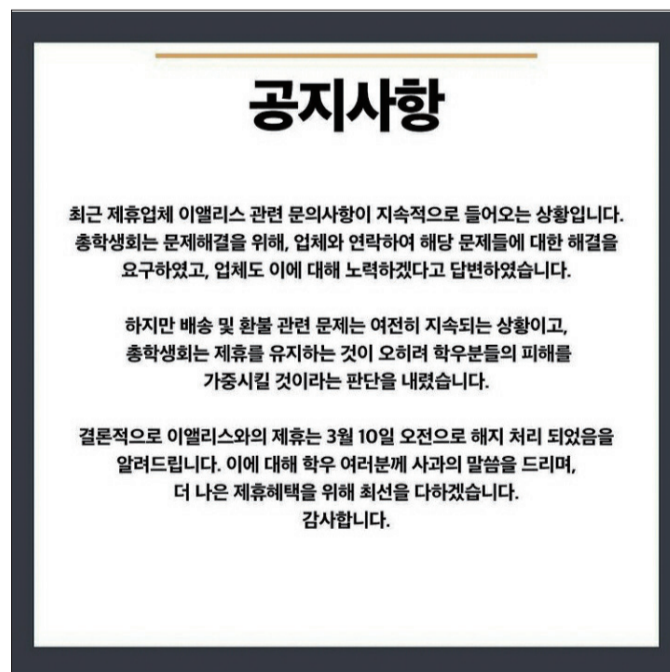
## ◆ 제휴사업, 명과암

시기적절한 제휴사업 체결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 4월, 설캠 총학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어도비(Adobe)’와 제휴를 체결했다. 이는 보다 편리한 비대면 강의 수강 환경 조성을 위함이었다. 지난해 4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학생들은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6월엔 일부 강의의 기말고사가 대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발생한 학생들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리게스트하우스△서울달빛게스트하우스△휴가하우스와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이전 글캠 총학 ‘더 본(The 본)’(이하 더 본)역시 취업 정보 플랫폼 ‘잡플래닛’과의 제휴를 주도했다. 더 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 정보 사이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에 잡플래닛과의 제휴 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 모든 학생이 △기업분석△면접후기△복지정보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휴사업이 꼭 좋은 결과로 귀결되진 않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도 이엘리스의 배송 및 환불 문제로 학생들은 교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엘리스 홈페이지엔 ‘3일 이내 배송 완료’라고 명시돼 있지만 상품이 주문 후 일주일째 출고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이번 달 4일에 주문한 책이 같은 달 10일까지 배송 접수 상태였고 11일에 배송이 완료됐다”며 “이미 수업에



▲이엘리스 홈페이지 팝업 창 (출처: 이엘리스 홈페이지)



▲글캠 총학의 제휴 해지 공지문 (출처: 글캠 총학 SNS)

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배송이 지연돼 곤란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학생들이 주문 취소를 요구하자 이엘리스 측은 소비자 번심을 이유로 반품비를 요구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이엘리스를 운영하는 박종환 펌플 대표는 “3일 이내 배송은 영업일 기준으로 공정한 것이었다”며 “프로모션할 때 학생에게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 교재수급에 어려움을 가져온 원인으로 △많은 학과△원서△특수 교재를 지목했다. 주문 후 취소가 불가

했던 이유에 대해선 “교재의 경우 도서를 현금으로 사 오는 방식이므로 출판사에 반품이 어렵다”며 “배송 문제 등 업체 잘못으로 인한 반품 요청인 경우엔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유(통번역·영어 15)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이엘리스 사건에 대해 “총학이 선정한 제휴업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 SNS가 학생자치 공간이 아닌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휴사업 홍보자료는 주로 총학 SNS에 게시된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 더 본 SNS에 올라온 23개 게시물 중 6개인 약 26%가 제휴사업 홍보에 관한 게시물이었다. 이에 조유나(통번역·스페인어 19) 씨는 “총학 SNS에 학교 관련 게시물과 제휴사업 관련 게시물이 분리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더 본 총학생회장은 “제휴사업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총학 대외협력국 주관 사업이므로 제휴를 자치활동의 일부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제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코로나19 관련 공지 중간에 제휴 안내 글이 있어서 그렇게 비친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혔다.

## ◆ 제휴사업, 앞으로의 방향은

외대학보에선 이번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휴사업 이용 현황과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6%가 총학 제휴사업을 이용했다. 그 이유로 ‘가격이 저렴해서’가 71.4%로 가장 높았고 ‘총학 제휴업체라 믿음이 가서’가 53.6%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59.4%는 제휴사업을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중 71.4%는 ‘어떤 제휴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승진(중국·중언문 19) 씨는 “제휴사업 홍보가 총학 SNS 위주로 이뤄져서 접근성이 떨어진 듯하다”며 “우리학교 앱에 제휴사업 관련 기능이 추가되는 등 홍보 매체가 다양해지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제휴사업 이용 배경엔 총학이 존재한다. 많은 학생이 총학에 대한 믿음과 할인 혜택을 이유로 제휴사업을 이용하는 만큼 총학의 제휴업체 선정 과정은 중요하다. 또한 제휴사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총학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김 회장은 “제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엘리스 사건을 통해 제휴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학생들의 요구와 편의를 한층 더 고려해 제휴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다.

# 우리학교 장애 학생 학습권, 여전한 장벽들

지난달 9일,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표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이하 평가)에 따르면 우리 학교 양캠퍼스(이하 양캠프)는 △최우수△우수△보통△개선요망 등급 중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리학교엔 장애 학생 지원 제도가 일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장애 학생의 생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더 나은 장애 학생의 학습권 및 복지 보장을 위해 △우리학교의 장애 학생 교육 복지 지원 현황△학교 측 입장△학교 사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 우리학교 장애 학생 교육 환경 및 복지 지원 현황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엔 각각 2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에 우리학교는 양캠프에 장애 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해 다방면으로 장애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양캠프 센터는 학습 지원을 위해 △도움미 학생 선발△우선 수강 신청△장학금 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 증진을 위해 개별 전문 지도와 학습 자문 프로그램 등도 시행한다. 또한 특별 휴학 제도를 실시하고 졸업요건 중 외국어 인증을 면제해주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선 심리상담△응급조치△기숙사 입주 우선 선발△저층 장애인 실 배정△생활 도움미 등을 지원한다. 이처럼 우리학교는 장애 학생의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센터는 장애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습보조공학기를 지원하지만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독서 화상기 외에 다른 장애 지원 기기를 확보하지 못했다. 독서 화상기마저도 글캠의 경우 1대, 설캠의 경우 2대로 넉넉하지 못하다. 센터 관계자는 “학습보조공학기 교체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예산을 요청해도 장애 학생 수가 적어 예산 편성이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청각 장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점차 커졌다. 장애 학생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할 땐 센터 내 직원이 수강 과목 교수에게 수업 내용 요약본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수업을 듣는 도움미 학생의 속기본을 장애 학생에게 전달해준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일 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비대면 수업 지원책만이 존재할 뿐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한 지원책은 부재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차후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이 생길 경우 맞춤형 지원책을 설립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해도 장애 학생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여전하다. 장애 학생의 캠퍼스 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장애인 전용 △보도블록△좌석△점자블록△주차장△화장실 등을 모두 법정 설치 비율 이상으로 표준을 지켜 설치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에게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의 경우 설캠은 건물 14개 동 중 8개 동, 글캠의 경우 19개 동 중 10개 동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설캠은 대면 수업이 자주 이뤄지는 사회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의 접근이 어렵다. 글캠은 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건물 중 백년관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다. 양캠프 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을 위해 대면 수업 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나 저

층 강의실로 수업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2학기부터 두 학기 동안 장애 학생 도움미로 활동했던 김은유(통번역·영어 15) 씨는 “장애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기에 시설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학생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경사로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도 많았다”며 교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한 현재 우리학교에선 장애 학생 특례 입학 전형이 실시되지 않고 있지 않다. 대신 우리학교 입학처는 장애 학생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선발 과정에서 장애 학생을 위해 △고사실 별도 배정△전담인력 운영△전문 의료진 상시 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경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 학생에게 맞춰진 교육과정을 따르며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 학생에게 학력 수준으로 경쟁하는 대학 입학 구조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인권적 차원에서 고급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는 특별전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 ◆ 학교 측의 조치와 방침

우리학교의 장애 학생이 마주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관련 부서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가 장애 학생 특례 입학 전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입학처 관계자는 “현재 장애 학생을 위한 교내 시설이 노후화됐고 충분하지 못해 장애 학생 특례 입학 전형의 시행이 어렵다”며 빈약한 시설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 학생 전형 신설이나 정원 증진 계획에 대해선 “심사숙고 끝에 계획을 세우더라도 학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캠 건설기획팀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해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계획이 달라진다”며 “이번 해 6월에 사회과학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글캠 건설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위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확보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 마련의 어려움을 표했다. 즉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던 것이다.

이에 예산조정팀 관계자는 “장애 학생 관련 요구사항이 발생할 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 학생 인원 자체가 적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양 캠퍼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 학생이 다니기 편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즉 이런 문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

되는 예산 편성조차 적은 장애 학생 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장애 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관련 부서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준성(사회·미디어 19)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된다”고 전했다.

## ◆ 장애 학생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이번 해 평가에서 7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대구대학교(이하 대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대는 장애 학생의 맞춤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학습 보조공학기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음성△점자△확대 대체 자료를 제작하고 장애 학생 전용 교과목을 운영한다. 비대면 수업 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내 수어 전문가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고 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우리학교의 장애 학생 교육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양캠프 총학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온(ON)’은 지난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시설물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 및 도움미 모집 제도 개선 공약이행을 준비 중이다”며 “꾸준히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도 우리학교의 장애 학생 교육 및 복지 실태에 대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도서관 엘리베이터 설계 건의△행사 속기 자막 지원△행사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구역 조성 등 장애 학생을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 학기 장애 학생 현황을 조사해 이에 맞는 지원을 학교 측에 꾸준히 요구하며 장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가 개최한 집담회에서 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 학습권 침해의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열악한 장애 학생 지원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장애 학생의 안전권 확보와 학업 완수를 위해 우리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 1. 2021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04.26(월) ~ 05.10(월)	2021.05.31(월) ~ 06.14(월)
고사장 발표	2021.05.20(목) 15:00	2021.06.23(수) 15:00
면접전형	2021.05.22(토) 10:00 예정	2021.06.26(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06.03(목) 15:00	2021.07.0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06.07(월) ~ 06.11(금)	2021.07.12(월) ~ 07.16(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6. 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한직 교사 장학금(애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료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명문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프로그램(샌디에고, 하와이)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논문·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521~2FAX. 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Y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읽어서 세계속으로

# 동구의 별이자 발칸의 힘인 세르비아에 우뚝 서다

2학년부터 세르비아어가 어려워졌다. 계속 공부하는데도 정체돼 있던 느낌을 받았고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교수님께서도 답답한 내 심정을 알았는지 여름학교를 다녀오면 어학 실력이 늘 것이라며 단기연수를 권하셨다. 운 좋게도 세르비아 노비사드대학교의 여름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현지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여름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3주였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욕심일진 모르나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 생각해 가기 전 목표를 분명히 삼았다. 세르비아어로만 말하는 것과 일상을 열심히 기록하는 것이 목표였다.

2019년 7월, 세르비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20시간의 비행 끝에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했고 차로 1시간을 더 달려 노비사드에도 착했다. 택시 기사님은 세르비아어로 말 걸어주며 여러 단어를 알려줬다. 해바라기가 뻗은 들판의 풍경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렇게 현지에서의 첫날이 지나갔다.

여름학교 수업은 크게 오전의 어학 수업과 오후의 문화 수업으로 나뉘었다. 오전수업엔 △게임△발표△수필 작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오후 수업에선 영화를 감상하고 갤러리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 문화를 체험했다. 수업 강도가 상당했지만 얻어가는 것도 많았다. 수업 초반엔 놓치는 부분도 있고 힘든 시간이 빨리 끝나길 바랐지만, 수업 후반엔 일찍 끝나는 것이 아쉽기만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난 현지에서 늘 관심의 대상



이었다. 교수님께서 'iz Seula(서울 출신)' 이라 부르며 수업 참여 기회를 주셨다. 국동의 유학생이 세르비아어를 공부하러 왔던 사실은 현지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 충분했다. 마트나 빵집에 가면 사장님께서 어색한 표현을 고쳐줬고 세탁소 주인 할머니께서 꼭 10분 이상 대화를 해줬다. 어디서든 배움의 기회가 존재했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다.

동유럽에서 케이팝(K-pop)을 비롯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던 수업 때 배워서 알

고 있었으나 직접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저녁 파티에선 케이팝 곡을 선택해 달란 부탁을 자주 받았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소개할 수 있었다. 룬메이트와 우리나라 화장품을 나눠 바르자 룬메이트가 극찬하기도 했다. 현지에선 우리가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아는 우리나라 모습의 전부라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가길 바란다.

여름학교는 내 삶에 큰 자신감을 줬다. 이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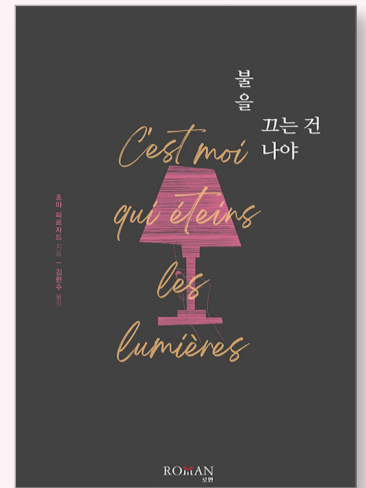
바탕으로 전공 언어에 자신감이 생겼고 스스로 밀 갈 해냈던 성취감을 느꼈다. 저마다 어학연수의 목적은 다를 것이다. 누군간 공부가 목적이 될 수 있고 누군간 타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한 박자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다. 목적이 어떠한 그 경험은 우리 인생에 북돋울만한 자리로 남아 소중한 경험이자 방향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사진 이소희(동유럽 · 세크어 18)

프랑스

## <불을 끄는 건 나야>

- 일상 속 스며든 차별에 대해 -



책 '불을 끄는 건 나야'의 주인공 '클레리스'는 이란의 평범한 가정주부다.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남편과 엄마를 험담하는 아들 사이에서 클레리스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내조△육아△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에 하고픈 일을 할 시간도 없지만 이에 만족한다. 하지만 '메일'을 만난 후 클레리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메일과 문학에 관한 대화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정을 교류한다. 또한 클레리스는 삶의 목적성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이후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거나 본인을 위한 일을 찾으며 얼마나 부인이 아닌 스스로의 색깔을 찾아가나.

책은 이란을 배경으로 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이란은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나라다. 1979년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된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크게 증가했다. 이란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우며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자전거 이용을 금하고 강제적으로 히잡을 착용하게 했다. 작가 '조아 피르자드' (이하 피르자드는 일상생활 속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책을 써 내려간다. 사실적인 문체와 담담한 표현은 혁명 이후 이란 여성의 일상을 과장 없이 보여준다. 피르자드로 인해 이란 여성 작가의 활동이 활발해져 그는 이란 여성문학의 선구자로 꼽힌다.

독자는 책을 읽으며 가정 속 여성의 삶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많은 국가는 없다. 퇴근 없는 집안일을 하며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불을 끌 때 가정주부의 하루 일과는 끝난다. 클레리스는 가족 중 누군가 해야 하는 불 끄기를 혼자 한다. 이는 소설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피르자드는 책을 통해 가족에 대한 여성의 헌신을 당연시하는 이란 사회의 문제를 환기시킨다. 이란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기에 책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독자는 책을 통해 이란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약 4배 길어 가정 속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동으로 한정되었다. 책을 통해 독자도 일상 속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의 어제와 오늘 ②

## 교육 목표의 변화 - 세계, 그리고 시대 흐름과 함께한 소통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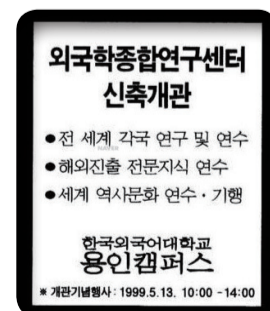
▲우리학교 글로벌봉사단 활동



▲세계의 언어로 부르는 아리랑 콘서트(2013)



▲글로벌캠퍼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개관 기사 (동아일보 1999년)

우리학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언어를 교수·연구하는 기관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역학 연구가 가장 특화됐고 글로벌 소통 활동에서 가장 앞선 우리학교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직후 정부의 국립외국어대학교 설립 구상에서 비롯됐다. 근대 주권국가가 국

1960년부터 1970년대에 들어 사회과학 분야로 교육 범위가 확대돼 단순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학에 능통한 전문가의 양성이란 과제가 교육 목표에 포함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의 중화항공업 활황과 함께 외국 기술 도입이란 국가 정책적 목표에 부응하며 외국어 연수평가원 운영 및 각종 해외 연구소 설립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시도하기도 했다.

1980년대 당시의 시대적 요구는 외국어와 자연과학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학문 확장이었다. 우리학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며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에 성공했다. 나아가 고유의 교육 가치인 외국어 연구 분야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2000년대부터 우리말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우리학교가 개교 이래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한국학 발전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에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운영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고 연구했다. 또한 1999년 교육대학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신설됐다. 한국학을 외국어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년 한국어문화교육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2017년엔 우리나라 최초로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대학원을 개설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국제지역학과 한국학을 쌍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연구 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갖추게 됐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며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독특한 교육 이념에도 드러나듯 우리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전 세계 언어권의 문화예술과 지식정보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도 개척자의 심정으로 헌신했다. 우리학교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려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에 앞장서 온 학교라 할 수 있다.

-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 각국과 교섭하기 위해선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과 협상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때문에 외국어교육은 권리가 아닌 의무였다. 1954년 개교 직후부터 우리학교는 시대와 국가가 필요로 했던 '외국어 전문가 양성'이란 교육 목표를 근간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사회과학△인문과학△자연과학△정보공학 등의 학문을 접목하며 세계 각국의 △경제△문화△사회△정치 등을 폭넓게 연구할 지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교육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지역학 관련 각종 연구소 및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등과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상승 효과를 냈고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 해마다 늘어나는 자퇴생, 발걸음 돌리는 학생 잡으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자퇴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5%에서 1.6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우리학교도 자퇴로 인한 학생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대학알리미에서 실시한 대학교 자퇴생 현황 조사 결과 우리학교는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 중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 다음으로 자퇴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은 학생 이탈 증가로 이어졌다. 꾸준히 증가하는 자퇴율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학교 자퇴생 ◆ 코로나19가 불러온 학생 이탈

최근 5년간 대학 자퇴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알리미에서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 자퇴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1.35%△1.48%△1.66%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학교도 자퇴로 인한 학생 이탈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소재 10개 대학 중 우리학교의 자퇴생 수와 자퇴율은 각각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학교 자퇴생 수는 491명으로 자퇴생 수가 622명으로 가장 많은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 다음으로 많았다. 2019년 기준 우리학교의 재적인원은 23,840명으로 재적인원이 34,753명인 경희대와 약 11,000명 정도 차이난다. 하지만 자퇴생 수에선 약 130명 정도의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퇴율의 경우 2.06%로 자퇴율이 2.35%로 가장 높은 서강대 다음으로 높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우리학교 자퇴율은 △1.68%△1.97%△2.06%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외대학보에선 이번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퇴 및 자퇴 고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자퇴를 생각해 본 적 있는 학생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약 57%였다. 그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강의△반수 및 편입 준비비△인간관계 갈등△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반수 및 편입 준비'가 약 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수 및 편입을 고민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약 80%가 '입결이 더 높은 학교에 가기 위해'를 이유로 들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30%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시간 증가는 반수생 증가에 일조했다. 대학입시학원 '종로학원하늘교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반수생은 약 7만 명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능 N수생 응시자 12만5918명 중 반수생 비율은 55.7%로 2019년보다 약 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포털 '유웨이닷컴'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 반수 관련 설문조사 결과 46.5%가 "반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역대 평균 반수율이 약 24%임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숫자다. 반수를 하려는 이유로 '지난해 입시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교 소속감 저하'가 각각 36.6%와 34.3%를 기록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으로 개인 시간이 증가하자 △공무원시험△반수△편입 등을 시도하는 학생이 등장했다.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A 씨는 "입시 결과가 우리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에 도전해보고 싶어 지난해 학기에 편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또 다른 영향은 학내 교류의 비활성화로 인한 소속감 저하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가 자퇴 및 자퇴 고려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학생은 약 92%에 달했다. 자퇴 및 자퇴 고려율 증가 이유로 약 83%의 학생이 '소속감 부재'를 들었다.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학생 간 교류가 감소해 학교나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자 학교 이탈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20학번 B 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힘들어 자퇴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행사도 취소되고 비대면 강의가 지속

돼 대학 생활에 회의감을 느꼈지만 기숙사에서 학과 선배들과 교류하며 대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학교 생활에서 소속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은

한편 외대학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는 '학교 대외적 이미지 향상'을 자퇴율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는 입시 결과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오신현(경상·국금 17) 씨는 "반수나 편입 등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우리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며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를 강조했다. 우리학교의 취업 현황을 홍보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었다. 한형준(인문·언어인지 19) 씨는 "코트라(KOTRA) 및 한국무역협회 취업 1위 등 우리학교 학생의 취직 현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윤병호 우리학교 학사종합센터 팀장은 "자퇴생은 재수를 통해 우리학교보다 서열이 더 높은 대학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는 대학 입학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대학 서열화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지적과 더불어 "우리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와 각 학과 및 학부의 전공과 교양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1학번의 이탈을 막을 대책 또한 시급하다. 최영은(국제지역·브라질 19) 씨는 "코로나19로 학

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이 늘었다"며 "학교 측에서 진로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화상으로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새내기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새내기 맞이 프로젝트 '인트로: 이곳이길, 이곳이길'을 개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학우 간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뒀다. 또한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온(ON)'은 수강신청 방법이나 학교 식당을 소개하는 등 새내기들이 온라인으로 대학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른 대면 행사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속감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자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꿈을 향한  
젊은 도전

# ROTC!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현 상황(코로나 19)관련 선발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2021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정시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사정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1년 3월 2일 ~ 4월 9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필기고사 : 4. 17.(토), 합격자 발표 : 5. 7.(금)
  - 면접평가 : 5. 24(월) ~ 6. 18.(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7. 16.(금)
- 문의처 : 02-2173-2595(행정실)

# LH 투기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

이번 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이하 LH) 직원이 경기도 광명·시흥시가 신도시에 지어 보상을 노린 것까지 밝혀져 LH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LH 직원 투기 논란의 △정되기 전 토지 약 23,000㎡ 를 매입했다 사실이 알려졌다. 토지에 나무를 과도하게 심 △진행과정△문제점△앞으로 필요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자.

## ◆ 논란의 중심에 선 LH

이번 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약 10명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관련 직원을 직위 해제해 사건을 수습하고자 했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번 달 2일 신도시 지정이 공표되기 전 LH 직원 5명이 미리 입수한 정보로 낮은 가격에 시흥시 과림동의 총 5,000㎡ 부지를 매입했다 사실이 밝혀졌다. 단독주택용지의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도\*의 보상을 염두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지난 2017년 다른 LH 직원이 약 2,000㎡ 크기의 시흥시 토지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구입 당시 그린벨트 지정 구역이었다. 그린벨트 구역은 편의 시설과 입지 이점이 없어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1년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 공론화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구매했다 의혹이 제기됐다.

땅 매입 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은 점과 매입한 토지에 나무를 과도하게 심은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 모두 복시흥농협 과림지점에서 본인의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았고 대출 금액은 총 58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 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복시흥농협은 이를 묵인하고 대출을 진행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 곳에 집중된 대출이 조직적 투기 정황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LH 직원이 토지에 심은 왕버드나무는 일반적으로 1그루당 4㎡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토지엔 1㎡ 당 25그루의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지로 지정된 후 묘목이 심어진 땅은 나무의 가치와 옮겨 심는 비용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LH 직원의 △광명시 옥길동△시흥시 무지내동△시흥시 정왕동 나무 이식 보상비는 총 87억 원에 달했다.

## ◆ 불거진 LH의 도덕성 문제

LH가 부정부패 관련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했던 점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09년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 후 설립됐다. 이에 LH는 △독점개발권△용도변경권△토지수용권이란 3개의 특권을 소유한 기업이 됐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국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기에 LH는 최상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 LH 내부 자체 청렴도 조사에선 이번 해까

지 10년간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0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선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임직원이 3,000명에 달했으며 그 출장비는 약 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부정 출장비 환수 이후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18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에서 LH 직원이 직원 간 소개로 토지를 매입해 5천만 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LH 측은 경고 처분만 내렸을 뿐 전매 차익을 환수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엔 아파트 자재 납품 중소기업에 3년간 약 3억 원가량 접대를 받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회계장부에 접대비와 휴가비를 비롯한 뇌물 수수 내역이 기록된 것이다.



▲매입한 토지에 심어진 왕버드나무 (출처: 뉴스원)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LH 사내 분위기도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14년부터 현직 직원이 겸직 금지 규칙을 어기고 온라인 부동산 유료 강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직원은 다른 곳에서 들지 못하는 정보라며 강의 중 LH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 ◆ LH 투기 논란,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마련이 힘들어진 시민에 비해 LH 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겼던 점은 LH 투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시민들은 LH 직원이 투기 목적으로 부당하게 매입한 토지를 매매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투기 의혹이 드러나도 토지 매매 취소나 부당 이득 환수는 불가하다. 이에 시민단체 '국

민의소리'는 지난 18일 LH 규탄집회를 열고 공직을 활용한 부당 이득 환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은 기관의 필요성에 답해야 할 것이다"며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거 주택공사·토지공사로 회귀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5개로 나눠 지자체에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LH 투기 논란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1가구 1주택 보유를 원칙으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당 이득 전액 몰수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LH 사장이 직원 토지거래 정보를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통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국회 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을 합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성 전 검찰을 우선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회의를 열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구성됐다.

한편 프랑스에선 정부의 독자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공공시설 건설을 계획한다. 조직을 인력 관리 부서와 사업 실행 관리 부서를 나눠 권력을 분산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지방정부에 토지를 강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개발이익을 모두 징수하는 개발 부과금 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부정 이익 취득을 막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LH가 국민 정서에 호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 공공택지 수용지역에 100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제도

김현익 기자 01hyunik@hufs.ac.kr

## www.사사한줄토익.com

### 사회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논란

이번 달 13일, 동아제약이 지난해 신입사원 면접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저질렀던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제기됐다. 이번 논란은 동아제약 관련 유튜브 영상에 지난해 면접에서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을 받았던 증언 댓글이 수차례 게시되며 불거졌다. 이에 동아제약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질문을 한 인사팀장에게 보직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경제 쿠팡, 우리나라 기업 최초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번 달 11일,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쿠팡의 종목 코드는 CPNG으로 정해졌으며 최종 공모가는 35달러로 확정됐다. 시가총액은 102조원에 육박했으며 기업가치는 72조를 넘어섰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은 상장일에 쿠팡 주식 약 3,391만 달러를 순매수해 하루 단위 해외 주식 순매수 기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 국제 미국 애틀랜타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번 달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다. 검거된 백인 용의자의 SNS에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이 담겨 있는 인종혐오적 글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돼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숨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인종차별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며 SNS에서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StopAsianHate)'란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 정치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

이번 달 2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이하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실무 협상이 합의됐다. 같은 달 23일엔 범야권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 후보가 확정됐다. 이에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 후보 간 맞대결로 진행된다.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형법 제307조(이하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위헌이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다. 일각에선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나 학교폭력 폭로 등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실적

시명예훼손죄가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기도 한다. 위헌 판결에 대한 여론이 대립 중인 가운데 문재인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이번 판결과 사실적시명예훼손죄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자.

**문재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Q1. 헌재가 처음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 균형 조정이에요. 그간 사회적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반대가 컸습니다.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낮은 국가라 평가했죠. 그럼에도 헌재는 인격권 보호를 우선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Q1-1. 헌재는 판결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라 민사적 구제 방법만은 명예훼손 피해 회복이 부족하던 점을 들었습니다. 민사적 구제 방법엔 어떤 것이 있고 왜 이것만은 부족한 건가요?

민사적 구제 방법엔 △사과문 게재△손해배상△정정 보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은 명예훼손 행위를 예방할 만큼 처벌이 세지 않아 형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어요.

## Q1-2. 징벌적 손해배상제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나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제한적인가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국의 보충법에서 유래한 제도예요. 지금도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선 자주 활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해결합니다. 이에 반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륙법계 국가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발전을 따라왔고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즉 형사처벌이 이미 이뤄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를 대신하지 않는 거죠.

## Q2. 형법 제310조(이하 제310조)는 사실적시명예훼손 조항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공익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이라 하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법원 판결에선 공익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공익성의 판단 기준이 법 자체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안도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동기가 부수적으로 포함됐다 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돼요. 이번 판결에선 공익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 위헌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이 판사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비판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면 대중이 자신의 발언이 제310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모호함이 따르거든요.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단 거죠.

## Q3. 사실적시 행위는 언론이 하는 일과 떼놓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공익성을 표방해 사실을 보도하는데 이런 일들은 제310조에 의해 항상 보호받아 왔나요?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했듯 법원은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만약 기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기사 내용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언론사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한다 목표를 천명하고 있기에 공익성이 인정돼요.

언론 보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진실성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면제 조항으로 제310조를 두고 있어요. 법원에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면 제310조를 인정해주죠.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때 명예훼손 판결이 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소송은 기사 내용이 틀렸거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해요. 기사 내용이 틀렸을 경우 법원이 판결하는 기준은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 조작 과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온전히 판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역시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죠.

## Q4. 최근 연예계와 체육계의 학교폭력 폭로나 미투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들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도 공익성을 인정받아 제310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는 논란의 영역이에요. 공익성을 인정받기 제일 쉬운 경우는 대상이 공인인 경우입니다. 원래 공인이라고 하면 공무원, 특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무원을 칭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체육인과 연예인 등의 인물을 공인으로 판단하는 부분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죠.

미투 운동이나 학교폭력 폭로 같은 경우는 사적인 동기보다 공적인 사회 집단을 위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법원 판결에서 공익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익성을 인정받아도 결국 쟁점은 폭로 내용의 진실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 Q5. 개인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로부터 명예훼손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나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이 밝히고 싶

지 않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처벌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두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형사적 처벌이 아닌 △사과문 게재△징벌적 손해배상△정정 보도 등의 민사적 구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 Q6. 비슷한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이 위헌이란 헌법소원 청구가 7대2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헌 청구는 그보다 위헌 의견이 더 는 5대4로 기각됐는데, 헌법재판관들의 법리적 판단이 변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헌법소원 청구 판결을 한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현 정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사회적 여론 변화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위헌이라 주장하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재판관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판결 중 '사실적시 자체는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란 반대 의견은 과거 판례엔 없던 내용입니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H-UP 진로탐색학점제 참여자 모집 안내

---

< HUFUS H-UP 학기제 >

- 1. H-UP 진로탐색학점제**
  -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 활동을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저학년부터의 진로탐색학기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적극적 활동, 관심분야 전문성 함양
  - 학생의 자율적·창의적 진로탐색 기회 마련 및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지원으로 졸업 후 사회 정착과 성장을 지원
- 2. 참여유형**
  - 가. 전공 심화
  - 나. 글로벌 해외지역전문기(해외취창업 포함)
  - 다. 문화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 라. 사회공헌 프로젝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봉사 등
  - 마. 융복합 학제 연구
  - 바. 창업
  - 사. 학생 자율 주제 선정
- 3. 선발인원 : 20명 내외**
- 4. 지원자격**
  - 가. 3학기~6학기 (2학년 1학기~3학년 2학기) 재학생
  - 나. 인정학점 33학점 미만 이수자(인정학점 2학점 인정 가능자)
- 5. 활동기간 : 2021년 4월8일~7월(16주)**
  - \* 본 과정은 일부 학생에 한하여 유연(집중)학기제 8주로도 운영 가능
- 6. 지원사항**
  - 가. 학점인정 : 교양 2학점(P/F)
  - 나. 활동지원 장학금 : 50만원 (등록금 초과 장학금, 선정 시 사전 지급)
  - 다. 활동 우수자 상급 : 성과 결과발표회 평가에 따른 상장 및 포상
    - 대상 1명 7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50만원, 우수상 3명 각 30만원
  - \* 중도포기, 휴학 등 불성실한 활동 시 장학금 환수 및 학점 미인정
- 7. 활동 및 성적부여**
  - 가.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주제별 활동일지, 활동보고서 제출
    - 제출한 보고서 등의 자료는 공개 필수
  - 나. 지도교수 상담 및 진로취업지원센터 컨설턴트 상담 필수(온·오프)
  - 다. 오리엔테이션(4.8(목) 예정) 및 성과 결과발표회(7.22(목) 예정)
    -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참석 필수(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변경 가능)
  - 라. 성적부여 : 성과결과발표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교양 2학점 인정(P/F 부여)
- 10. 유의사항**
  - 가. 본 프로그램 지원신청 및 계획서는 개인별 제출
  - 나.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1부
    -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이행 서약서 1부
  - 다. 제출기간 : 2021.03. 28(일)까지
    - 진로취업지원 홈페이지(<http://job.hufs.ac.kr/>) 신청
  - 라. 문의 : 031-330-4041, 4036



## 새로운 도전의 시작

지난해 우리학교에 편입한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빴다. 그토록 바랐던 학교에 입학했기에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돼 내가 꿈꾸던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모르는 동기들과 듣는 온라인 수업과 고학번이지만 뒤쳐진 전공어 실력은 소속감 부재에 영향을 줬다. 그러다 보니 배움의 기쁨보다 입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이에 졸업하기 전 우리학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외대학보 수습기자 공고를 봤다. 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탓에 글쓰기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합격한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던 생각에 매우 기뻐했다.

얼마 후 수습기자로서 방중교육을 받게 됐다. 생각과는 다르게 하루 종일 글을 쓰는 것이 아닌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워야 했다. 우리학교 부서를 익혔고 전화 인터뷰하는 절차도 배웠다. 수습기간 후 바로 실전에 투입된 단점을 알게 되자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수습교육이 끝난 후 정기자로서 개강호 보도기사를 작성했다. 기획기사 작성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를 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다. 각 부서에 전화하기 전 어떤 질문을 할지 종이에 적었다.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평소 성격과 다르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긴장했던 것과 달리 우리학교 관계자들은 매우 친절했고 더 많은 자료를 주고 싶으며 따로 메일을 보내주기도 했다. 특히 특수외국어 표준 교재 관련 기사를 취재할 때 직접 제작에 참여한 교수님과 인터뷰가 가장 인상 깊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이런 사업과 행사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이때 기자로서 매우 뿌듯했다. 성의 있는 인터뷰 답변을 받게 되니 최선을 다해 기사를 작성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개강호 기사에 최대한 열정을 담았다.

외대학보에 들어오고 나서 자유시간이 줄었지만 23살의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 기사 작성 시엔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대학보 독자들이 내 기사를 보며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박채민 기자

## [책 '아무튼, 요가'를 읽고 내게 집중하는 여정]

책 '아무튼, 요가'의 저자는 미국에서 살고 싶단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서른 살에 뉴욕으로 떠난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던 그는 친구의 추천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요가원에 가기로 한다. 그곳에선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후줄근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어도 괜찮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매트를 가까이 붙여 주위 사람과 계속 부딪혀도 아무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그는 사람들의 그런 열정을 처음 마주한 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

요가의 매력은 솔직함이다. 내가 처음 요가를 시작했을 땐 남을 의식하곤 했다. 이는 더 잘하고 싶단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며 점점 나 자신과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자 요가 시간은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요가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란 말이 있다. 이는 실제 요가원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요가 선생님은 어떤 동작이 안 되는 날엔 '왜 이 동작이 안 되지?'가 아닌 '오늘은 내 몸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라고 지도한다. 요가를 통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집중하는 과정에 점점 익숙해졌다. 처음엔 요가가 정적인 운동이란 편견 때문에 운동 효과가 있을지 우려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렬되고 견고해지는 걸 느꼈다.

임재영 기자 02korea@hufs.ac.kr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나이스 아웃'을 보고 거짓을 통해 진실을 추적하다]

영화 '나이스 아웃'은 한 부호의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싼 추리 영화다. 설 새 없는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은 영화에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인기 추리 소설 작가 '할런'은 자신의 85번째 생일 파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다. 그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 '랜섬'은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심문한다. 수사 진행 중 할런의 유언장이 공개돼 모든 유산이 간병인 '마르타'에게 상속되자 가족들은 이를 막기 위해 마르타를 용의자로 몰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 달리 둘째 손자 '랜섬'이 범인으로 밝혀진다. 유산 상속 과정에서 할런과 갈등을 빚은 랜섬이 약과 독극물이 담긴 주사기를 바꿔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랜섬은 체포되고 마르타는 할런의 유산을 당당히 상속받는다. 마르타가 혼란에 빠진 랜섬 가족을 저택에서 내려다보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나이스 아웃은 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수면 위로 드러낸다. 불법체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르타는 언제나 동정의 대상이다. 할런과 그의 가족 대부분은 마르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한다. 할런의 죽음 이후 그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한다. 그러나 유산이 마르타에게 상속된단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마르타에게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마르타와 할런의 관계가 부적절했을 거라며 함부로 추측한다. 마르타와 가장 친밀했던 할런의 손녀 '맥'마저 마르타에게 등을 돌리고 가족

편에 선다. 그들의 태도는 상류층이 갖는 동정의 형태가 얼마나 시혜적인지 보여준다. 마르타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 그들과 동등할 수 없는 존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고했던 차별은 영화의 결말에서 전복된다. 사회적 위치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마르타가 결국 저택의 주인이 된 장면은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혁명을 가능케 하며 통쾌함을 자아낸다. 사회 저변에 깔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상류층의 위선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통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영화는 사회 고발 자체를 주제로 삼는다. 또한 대부분의 추리 영화는 작품의 전개와 흥미성만을 중점에 둔다. 두 영화의 틀은 동떨어져 보이지만 나이스 아웃은 이 같은 영화의 틀을 깬다. 영화의 표면적 주제는 살인사건의 진범을 추리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사회적 계급 붕괴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허구와도 같은 영화 속 계급 역전은 평등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 날카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 1052호 학보를 읽고

## 새 학기를 시작하는 봄을 맞이하며

엄성희 (중국 · 중언문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3월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모두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학교는 여러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온라인 새내기 배움터 진행과 대학 교육 개선 및 혁신아이디어 개최 관련 기사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온라인 새내기 배움터에 참여하고 신입생 환영기트를 받은 21학년 신입생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이 애써주셨던 걸 알 수 있었다. 외대학보 1052호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당연하게 받았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일을 시도한 선배님과 많은 분의 노고를 알려준 외대학보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학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었다. 설캠 인문과학관 식당 가격 인상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외대학보에선 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식당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 의견도 함께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에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학교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 간의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학교는 글로벌캠퍼스 외국어 계열 3개 단과대학 학제개편과 사범대학 내 세 개 학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대학보에선 이런 사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로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지적한다.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동감한다. 우리학교의 성장을 위해선 학생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면에선 미안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독재 체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미안마 시민은 군부의 독단적인 체제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두 입장이 갈등의 골은 계속해 깊어졌고 결국 군부의 무력 진압까지 이어지게 됐다. 비록 다른 나라이지만 우리 미안마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역압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이다. 군부의 무력 진압이 멈추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안마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루길 소망한다.

이번 외대학보를 통해 우리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변화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처럼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

### 1052호 학보를 읽고

## 새로운 출발 속의 외대학보

김경문 (국제지역 · 한국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던 지난해 겨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렸다. 계절의 순환 속 겨울은 한해의 끝이자 다음 해의 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속에서 외대학보 개강호가 나왔다.

지난 방학 동안 우리학교는 유난히 바빴다. 학교는 글로벌캠퍼스(이하 설캠)의 학제개편 진행 방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외대학보에선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 과정과 문제점을 다뤘다. 특히 양캠퍼스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제 개편안이 학교의 특수성을 없앤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여기에 타 대학의 이원화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획면에선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의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범대학(이하 사범대) 정원 감축 논란도 다뤘다. 글캠 재학생으로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설캠 사범대 정원 감축 문제를 알 수 있었다. 우리학교는 △교수진 미충원 △평가 준비 미흡 △학교 시설 문제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 사범대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됐다. 인원 감축 결정 후엔 학문적 유사성

이 없는 3개 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는 안을 내놨다. 사범대 재학생에게 논의 과정을 공유하지 않았던 점이 개탄스럽다. 학교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이다.

이외에도 외대학보는 개인정보 인식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속 학생 만남 주선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했다. 개인적으로도 SNS를 통한 만남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을 걱정했다. 해당 기사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면에선 미안마 군부 쿠데타 발생 배경과 민주화 시위 상황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학술면은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민영화 개념을 텍사스 대규모 정전 사태 예시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쉽게 설명한 점이 좋았다.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교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외부의 간섭에 물러서지 말고 외대학보만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한다. 좋은 기사를 위해 고생하는 외대학보 구성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불편한 사실을 바라보다

국·부장 고정칼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낯설던 일에 점점 적응했다. 대면 접촉은 줄고 비대면 만남은 당연해졌다. 우리학교도 벌써 3학기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익숙함 속에서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최근 우리학교는 장애 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우리학교는 장애 학생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먼저 캠퍼스 내 장애 학생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거의 없고 경사가 심하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 학생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장애 학생이 제대로 학습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 우리학교는 △과제 제출기한 연장△대필도 우미△시험 기간 연장 등의 제도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학습기기는 부족하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학습의 한계가 더욱 드러난다. 이처럼 우리학교가 장애 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등 등급을 받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이하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흥시의 신도시 지정이 공표되기 전 LH 직원은 미리 입수한 정보로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를 매입했다. 또한 왕버드나무를 심어 추가적인 혜택을 얻고자 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 주거 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업의

부정부패는 국민적 분노를 샀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주택 마련이 힘든 시민에게 LH 투기 사건은 공공기업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줬다. 관련 법안과 대책을 마련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외에선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StopAsianHate)' SNS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번 달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SNS에 인종차별적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란 이유로 지난해 동안 아시아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다. 아시아에 속한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을 피해 가지 못했다. 실제로 해외 방송에서 우리나라 가수를 두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루빨리 인종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함양돼 더 이상 아시아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다. 어떤 사실은 회피하며 모르체하기에 쉽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고 이를 해결할 때마다 사회엔 변화가 찾아온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이 사회에 하나둘씩 모이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 학령인구 감소를 마주한 대학의 변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일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속출했다. 전국 200개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30개 대학을 넘었고, 이 가운데 18개 대학은 미달 규모가 200명 이상이다. 비교적 탄탄한 입지를 갖췄던 국립거점대학에서도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미충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의 미충원 사태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지원자에 해당하는 고 3 수험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1990년 92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 추이를 보였는데, 최근 감소세가 가속화되어 2021년에는 47만 6천 명까지 줄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한국 대학의 입학 정원은 49만 2,452명으로 18세 학령인구보다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미등록 사태는 당연한 결과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수 선호 현상 등이 이를 가중시킨 형국이다. 18세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24년에는 현재의 대학 정원보다 6만 2천 명 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해 온 이유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3.0명 수준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2.0명 이하로 하락했고, 2005년에는 1.09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1.2~1.3명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20년에는 0.84명까지 내려갔다. 일반적으로 인구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정도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은 1.63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태어난 아기가 18년 후에 대학 입학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날 대학이 마주한 미등록 사태는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이 빚은 결과이다.

저출산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며, 다양한 사회이슈와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는 과거에 있었던 저출산의 결과이다. 이 현상은 대학의 교육환경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더 나아가 대학가의 산업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변화의 원인이 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계의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 대상 대학을 발표해 왔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대학의 정원감축과 연계시킴으로써 자발적인 정원조정을 유도해 온 것이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정원축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에 등록된 외국인 학생 수는 2006년 3만 2천 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6만 명에 이르렀다. 우리대학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기준 3,266명으로 국내 대학 중 9위이며 출신국가 수는 112개국에 이른다. 재학생의 16%가 외국인 학생인 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은 이제 학내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강의 언어 등 강의 방식과 학사관리, 진로지도 등에 있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유치한다는 전제에서 대학행정은 더 이상 교육부만의 소관이 아니며,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공공의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다문화사회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등이 참여해야 하는 포괄적 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대학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학이 직면한 학령인구 감소가 장기화된 저출산 문제에 기인한 것이며, 결국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대학간의 통폐합, 정원축소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공공재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율조절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사적재화에 해당되는 논리이다. 튼튼한 대학교육은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혁과 국제적 외연확대는 한국사회가 갖는 다양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강의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교육의 역할과 질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미충원 사태도 대학교육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외연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학교

조미경(사회·미디어 18)



▲2019년 여름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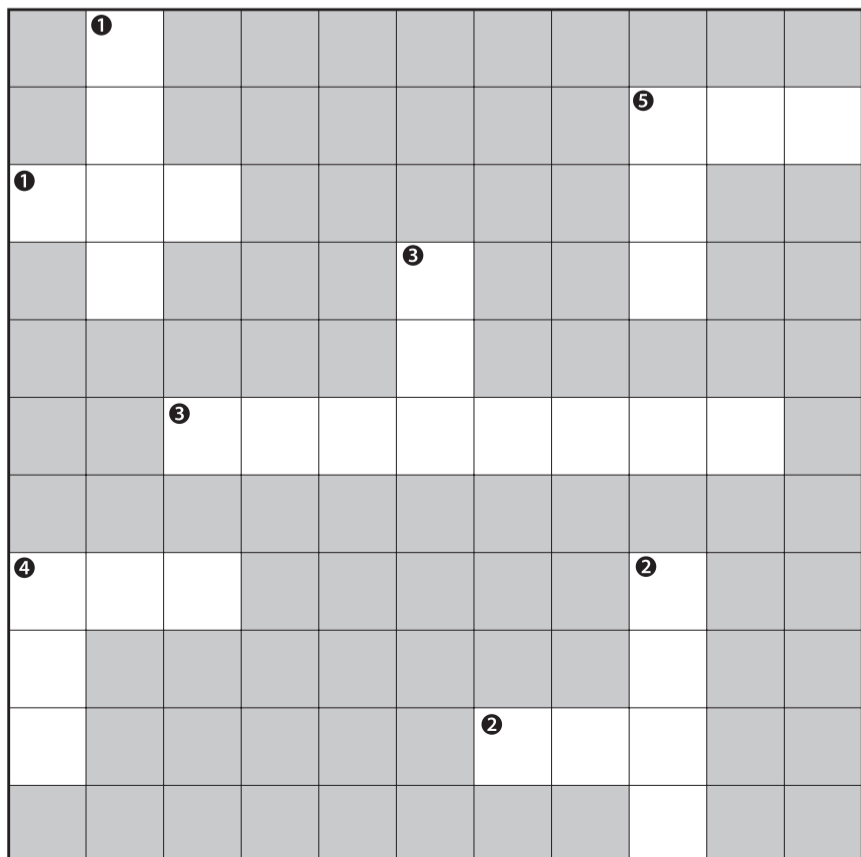


▲2019년 여름 졸업식



▲2019년 사이 축제 공연

## 십자말풀이



### 가로

- 오종진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은 ○○○ 특강 사업 확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면 참조)
- 거주 학생들의 화재 예방 교육 참여도는 저조하다. (3면 참조)
- 우리학교는 양캠퍼스 ○○○○○○○○을 운영해 다방면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5면 참조)
- 하지만 이 지역은 1년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 ○○○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 (8면 참조)
- 유신 상숙 과정에서 할린과 갈등을 빚은 팬심이 악과 독극물이 담긴 ○○○를 바꿔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10면 참조)

### 세로

- 이번 달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능력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열렸다. (2면 참조)
- 은 학생 복지와 직결된 총학 대표 사업이다. (4면 참조)
- 최근 5년간 대학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면 참조)
-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이 인정된다. (9면 참조)
- 신진국 사업가는 6년간 중국 ○○○으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12면 참조)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한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00hyunzi@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이현지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 자신만의 길을 디자인한 신건국 패션 사업가를 만나다

신건국(동양학·중어 98) 씨는 의류업계 퇴사 후 패션 브랜드 'ESNC' (이하 에센크)를 런칭했다. 에센크 런칭 후엔 △가족공방 운영△강연△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패션 아이템과 브랜드 제작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패션 사업가의 길을 걷는 그의 삶을 따라가 보자.

### Q1. 우리학교 중국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졸곧 해외에 나가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대학생이 해외로 나가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이 가능한 중국어과에 지원했습니다.

### Q1-2. 대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제 미래와 삶에 대한 고민을 자주 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시기에 사기업 주주 공모전과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중소기업에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지원에서 기업의 개성점을 찾는 공모전에 참가한 것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 Q2. 중국어과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패션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패션기업 '신원'이 제 회사 지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기준은 △주말에 쉬 수 있는가△회사에 해외 관련된 업무가 있는가△회식 강요가 없는가였어요. 신원은 국내엔 패션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해 처음으로 발령받은 국내 브랜드 관리 부서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핸드백 생산 부서로 옮기게 됐어요. 마침 핸드백 생산 부서에 상품 생산의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중국어 능통자가 필요했거든요. 부서 이동 후 자연스럽게 핸드백 생산 과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저만의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 틈틈이 생산 과정을 공부했어요.

### Q3. 에센크 런칭 배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6년간 중국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의 방향을 고민하던 당시 중국엔 제조 공장이 사라지고 소비재 산업이 들어오는 추세였어요. 주변에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더 이상 제조업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에 전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원의 생산 부서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 공방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웠어요. 퇴사 3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퇴사 후 1년 뒤 에센크를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 Q3-1. 우리학교 중국어과에서 배운 것이 패션사업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중국 파트너와 함께 일할 때 중국어를 전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생산에 필요한 질 좋고 저렴한 원자재 대부분이 중국에 있기에 현지 파트너와 일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사업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없어요.

### Q3-2. 런칭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나요?

창업 및 운영 자본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균형 잡힌 판매와 운영은 성공적인 사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판매와 운영엔 자본이 필요하죠. 공방을 시작한 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한 종류의 가방 제작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나 디자인 샘플을 담당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방에서 만들게 된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죠. 현재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소량의 원료를 투자받아 샘플 제작비용을 아끼고 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나자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운영에 제일 중요한 건 투자할 자본과 보유한 자본의 적절한 조율이란 걸 알게 됐죠.

### Q4. 강연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사 전 샘플 제작 연습을 위해 연 작은 공방을 보고 수업 문이 들어왔어요. 망설였지만 브랜드 운영을 위한 자금도 필요했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보고자 싶어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공방 강연과 차이를 두려고 실제 브랜드 운영에 사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가족 공예 수업 중인 신건국 사업가

### Q5. 패션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에센크도 실용적인 디자인과 좋은 소재를 강점으로 둔 우수한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 Q6. 앞으로 이루고 싶은 사업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중국 진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10%를 중국 온라인상에서 판매했어요. 판매 일주일 만에 모든 제품이 품절됐는데 그때의 성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마로네'처럼 중국에서도 카페 속 공방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에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Q6-1.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게으른 자 궁핍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란 문구가 제 가치관입니다. 직장인이 되고 여러 번 힘든 일을 겪었어요.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됐고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성경에서 이 문구를 봤고 이후 기독교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매사 성실히 임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힘든 고비를 만날 때 마다 흔들렸는데 저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나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 Q7. 창업을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이 놀아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최선을 다해 찾길 바라요.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된다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또한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도움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다시 베풀면 되거든요.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Lifetime Value Creator  
고객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뜻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www.lotte.co.kr

## 가장 가까이에서 롯데가 힘이 될게요. le

모든 순간을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당신의 인생과 함께 가는 친구 le 함께 가는 친구, 롯데